표적 먹는 하마 악하고 음란함

(마태복음 12:38~42)

38. 그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3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40.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41.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42.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표적 먹는 하마 악하고 음란함>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표적 먹는 하마 악하고 음란함'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의 악함과 음란함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표적을 먹어치웠고 또한 먹어치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관심을 끄는 대목은 바로 악함과 음란함입니다.

먼저 표적이라는 말은 헬라어 세메이온(σημειον)으로써 증표(token), 표식(sign)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그리스도로써의 표적을 구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출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루한 행색의 목수 출신이었던 예수님이 정말로 자신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라면 하늘과 연결된 표식을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암행어사에게 마패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도 표적이 있습니다. 마패는 암행어사가 어디에 있든 한양에 있는 임금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표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표적은 천지의 주재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었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럼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새삼스럽게 표적을 요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행동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늘과 연결된 증거가 표적이라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행동과 모든 기적이 이들이 원했던 표적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도 새삼스럽게 표적을 요구했던 이유는 이들의 악하고 음란함이 그리스도의 표적을 먹어치웠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표적은 곧 하늘을 가리키는 표지판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가리키는 표지판을 하마처럼 먹어치운 결과 아무리 예수님께서 표적으로써의 기적을 제시하셔도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기적으로는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하늘을 가리키는 표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표적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늘과 연결되어 계신 분임을 확인하고 하늘에 대한 그리움을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중들이 원했던 표적의 기능은 이와 달랐습니다. 이들은 하늘의 힘으로 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 하늘을 가리키고 하늘을 향한 그리움을 발동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땅에서 그리워하고 있는 목적지를 가기 위해 하늘의 힘을 이용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일반 대중과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집단의 견해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본 백성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향해 성령훼방 죄를 말씀하시니 겁이 났는지 다른 표적을 요구합니다. 일반 대중들과는 다른 목적을 향해 예수님을 앞세워보려 한 것입니다. 이들이 요구한 그리스도의 표적은 출애굽 때에 애굽이 초토화되었던 것처럼 로마를 초토화시키는 것과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일반 대중은 하늘의 능력으로 신변에서 일어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나라를 독립시키고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표적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존재해도 유대인 전체가 악하고 음란한 마음을 가진 하마가 되어서 하늘의 표지판을 먹어치웠던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보일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들의 악하고 음란함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함은 헬라어 포네로스(πονηρός)로써 동사 포네오(πονέω)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포네오는 '수고하다, 힘들다, 고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본문의 악함이란 쓸데없이 수고하고 고되게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수고하면서 고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기특한 일이나

성실하고 모범적인 삶도 아닙니다. 그 수고와 고됨이 하나님의 자비나 긍휼을 받을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몸보다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세상일로 인해 지치고 괴롭더라도 이는 불쌍히 여길 것이 아니라 악함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괴롭고 힘든 이유는 스스로 삶에 대해서 책임지고 원하는 대로 만들기 위해서 씨름하기 때문입니다.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수고로 번역된 헬라어 코피아오(κοπιάω)는 본문에 나타난 포네로스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상통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의미와 결합시켜 재해석하자면 "삶을 책임지겠다고 수고하고 고되게 살아가는 악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악한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하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삶을 책임지려한 결과 수고하고 고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기특하거나 칭찬들을 일이 아니라 단지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성경은 이러한 악함을 처음부터 지적하고 경계해왔습니다.

우리는 삶을 책임지려는 과정에서 가족을 책임지고 사업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한 마음을 가질 때에 예수님이 하늘과 연결되어서 온갖 기적을 나타내셔도 하늘을 그리워하지 않고 오히려 표적을 잡아먹는 하마로 살아가게 됩니다. 땅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되었기에 마음이 땅에 매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늘에 대한 표적을 보여주셔도 땅의 일들을 해결할 용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삶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악한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오직 하늘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가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느낄 때에 성령께서는 하늘에 대한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임을 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대해 책임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본래 세상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할 대상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잊을 때에 하늘을 지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삶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표적을 보여주셔도 마음을 하늘로 보낼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 대해 책임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으로 하늘을 향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리를 빼앗아 자녀를 책임지려 하기에 악하다는 것입니다.

음란함은 헬라어 모이칼리스(μοιχαλίς)로써 '간음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애인이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음란함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기쁘고 만족하기 위해 하나님을 지나치고 세상을 그리워하는 것이 음란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 기쁨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주시려는

구원 또한 하나님으로 누리신 기쁨을 우리에게도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말씀하신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성경 전체가 증언하고 있는 기쁨의 원천되신 하나님을 지나쳐서 이 땅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음란함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형통함을 통해 기쁨을 얻고자 합니다. 또 돈을 벌어 기쁨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마음의 음란함입니다.
이러한 마음 상태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을 세상에서의 음란함을 충족시키고 가속화시키기 위한 능력과 계기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기적을 보아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런 악함과 음란함은 하늘을 가리키고 하늘을 그리워하고 하늘을 향하게 하는 표적의 본래 의미를 잡아먹습니다. 어떻게 이들에게 하늘을 가리키고 하늘을 향하고 하늘을 그리워하게 할 수 있을까요? 무슨 기적을 일으켜도 표적을 다 먹어치우는 악함과 음란함을 가지고 있기에 본래 가리킬 곳을 가리키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보여주실 유일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외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하여금 하늘을 향하게 하고 그리워하게 할 수 있는 다른 표적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또한 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악하고 음란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악하고 음란함을 그대로 묵인하고 인정한 채로 전도 받았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악하고 음란하다는 사실을 지적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복음을 전도 받은 것이 아니라 기독종교로 전도 받았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 또한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답시고 “하나님을 믿으면 사업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천당에도 가게 됩니다.”라고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본래의 복음의 의미를 전도하였다면 전도의 내용은 반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사업을 붙잡고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당신의 사업은 하나님의 책임 하에 있습니다. 흥하든 망하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 악한 책임감으로부터 죽어야만 합니다. 또 사업이 잘 될 날만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음란함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사업을 붙잡고 책임지려는 악함이 죽어야 하고 사업이 잘되면 좋겠다는 그리움에 대

한 음란함이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인격적 속성이 무엇이든지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동안 악함과 음란함이 인격적 체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위해서는 악하고 음란한 마음이 죽어야만 합니다."라는 내용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없듯이 종교로써의 기독교에는 구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마음은 하늘을 향하는 모든 표적을 먹어치우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잘못 전파되어온 종교로써의 기독교는 악함과 음란함을 그대로 묵인하였습니다. 종교로써의 기독교는 예수님의 기적을 이야기했지만 표적의 기능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표적은 표지판이기 때문에 하늘로 가야하고 하늘을 향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늘을 향하게 하지 않고 땅에서 책임지려는 악한 마음을 묵인하고 하나님께 도달하고 싶은 마음 대신에 다른 목적지를 갖게 하는 음란한 마음을 유지하게 합니다.

이러한 악함과 음란함의 마음을 묵인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해봤자 구원이 없는 기독종교를 전파하고 있을 뿐입니다. 종교가 아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악함과 음란함이 지적되어야만 합니다. 스스로 책임지고자 붙잡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함을 가르쳐줘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책임 질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음은 무서운 일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내가 책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한낱 주장이 아닌 명백한 사실이며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쓸데없는 책임을 지느라 고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인격화된 귀신들림의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일들을 책임지지 못해서 안달복달하며 악하게 살아갑니다. 또 이 세상에서 기쁨이 주어지리라 여겨지는 지점을 그리워하느라 음란하게 살아갑니다. 악함과 음란함이 죽지 않으면 하늘을 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악함과 음란함이 체질이 되어버린 우리가 통째로 죽을 수 있는 곳을 만드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한 번 헤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기적을 행하셔도 하늘로 마음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았고 천지의 주재이심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서도 스스로 삶을 책임지려는 악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은 기쁨이 될 수 없다는 음란함을 보였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기쁨이 된다고 여기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실 수는 없다고 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한편 41~42절을 보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전도를 받았던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함으로 그리움

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남방 여왕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고자 천리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시바 여왕이 찾고자 했던 지혜는 하늘에 참여한 인격에서 나오는 생각과 말이었습니다. 땅에서 하늘의 흔적을 찾고자 했던 것을 상징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음에 하나님을 통째로 담고 계셨습니다. 이들이 하늘을 향하고자 했다면 시바 여왕보다 열배 백배로 찾는 것이 당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니느웨 사람들과 시바 여왕에게 심판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악함과 음란함은 하늘을 가리키는 모든 표적을 잡아먹는 하마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하기 위해 십자가 생활화를 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는 가족들과 일들과 상황들을 붙잡고 책임지려는 악함이 체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땅에서 기뻐하고 만족하기를 그리워하는 음란함이 체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체질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매일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지고 다닌다고 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할 수 없다면 하늘을 향할 수도 없고 그리워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 상태에서는 성령님께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확실하고 더 크고 더 우선적으로 보이게 하시는 사역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방향성을 따르는 그리움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십자가 생활화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봄을 지속하는 것 외에는 우리의 체질이 되어버린 악함과 음란함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과 연합해서 하늘에 대한 관계만을 책임지게 해주셔서 땅에 대한 모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이 땅에서 기쁨을 기대하고 그리워하던 모든 음란함이 죽고 하나님 아버지만으로 기뻐하는 것을 기대하고 그리워함으로써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현장 속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